

회원 상호간의 기술정보교류와 협력증진에 기여하길...



우리나라 통신·방송위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우주과학 및 관련 산업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여 발족된 우리 연구회는 그 동안 임직원 및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당국의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시하면서 금번 회지를 창간하여 회원 상호간의 교류는 물론 연구활동과 성과에 대한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 연구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명실상부한 연구회로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우주에 던져진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우주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래 인간의 삶은 우주배경을 더 잘 이용하여 풍요와 행복을 증진 시킬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별 1호에 이어 2호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우주시대의 개막을 열었습니다. 선진국에 비교하여 볼 때 아직은 초보 단계의 시작에 불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시작이 첨단 과학 실용화의 첫걸음이며 풍요와 행복을 추구하는 과학 기술의 문명화를 구체화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선진제국들은 탈냉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위성·우주관련 군사기술을 민간산업 부문으로 이전 실용화에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위성산업 분야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브라질,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 후발국가들도 과감한 투자를 하고있어 개발을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93 대전엑스포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경쟁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비행캡슐과 지난 86년 구소련이 띄웠던 우주정거장 미르, 유인초음파 항공기(BDK 2), 화성탐사용 자동행성탐사차량등 최첨단 우주항공장비를 전시했습니다. 미국은 우주항공기술을 환경문제 해결책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주제 하에 인공위성을 사용했고 「엠베서더호」를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미항공우주국(NASA)의 우주탐사영상 장면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보다 친숙한 안목으로 위성·우주산업 관련 분야에 접근해야 함은 물론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성이용 산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기술의 국산화 조기 정착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할 시점임을 간과해서 안 될일이라 확신합니다.

첨단 미래산업의 총아라고 불리우는 위성통신 분야는 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욕구가 다양화 대량화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고도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서 최근 정부 당국의 위성통신 및 방송사업에 관한 정책적인 지원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별 1, 2호를 성공리에

발사 시켰습니다. 또한 1995년 우리나라 최초의 통신/방송용 무궁화호 위성을 보유 운용하게 될 시점에서 이 분야 종사자들에 부여된 책무는 막중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 산업체, 학계, 관계기관 등 관련 분야를 망라하여 정보의 교류와 협력체계의 확보등 발전 방안에 관한 지혜를 모아야하며 경쟁적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연구회는 산·학·연의 뜻을 모아 우리나라 위성 우주 산업관련 기술개발의 효율적인 방향 제시는 물론 정책 관련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회원 상호간의 기술정보 교류와 협력증진을 도모하며 대중화를 위한 일환으로 미흡하나마 작은 회지를 발간하게 됨을 여러분과 같이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각계 선배 제현의 기탄없는 충고를 기대하며 본 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1993. 10.

회 장 최 순 달